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창희 연구위원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7개 기업(45.5%)이 보상한도 10억 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또한 10억 원 이하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이 상당수 존재함.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4월 18일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¹⁾
 - 황현아(2017)²⁾는 동 개정안으로 인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PL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음
 - 동 개정안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³⁾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기업이 충분한 보상한도를 가진 PL보험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음
 -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전 보상한도가 17.5억 원인 PL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소송비용으로 소진해 피해자들이 PL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⁵⁾

1)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법률 제147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2)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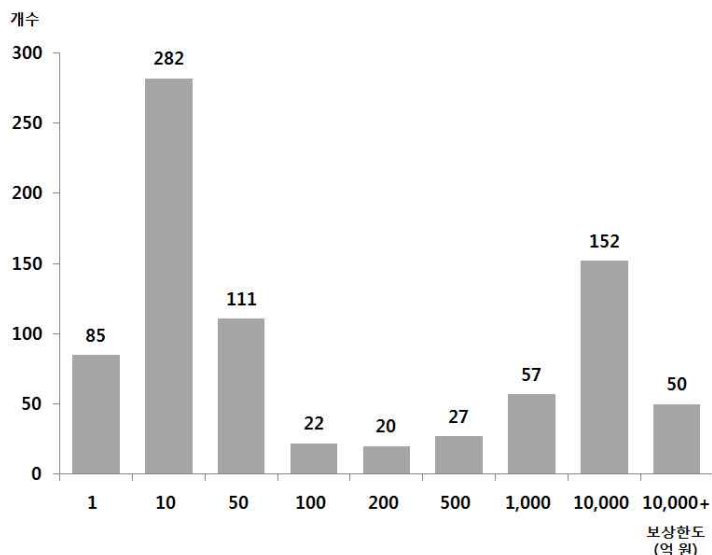
3)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법률 제14764호 참조

4) product liability insurance

5) 이투데이(2016. 4. 28),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참조

- 2016년 11월 법원이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⁶⁾

〈그림 1〉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보상 한도 분포



주: 2016년 10월 현재 5개 손해보험회사와 PL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PL보험 단독상품과 패키지보험의 PL담보의 보상 한도. 구간 값은 각 구간의 최대 보상 한도임. 예를 들어 '100'은 PL보험 보상한도가 5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인 기업의 개수

자료: 5개 손해보험 회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손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원수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한 5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70.4%임

■ 806개 외감대상기업⁷⁾의 PL보험 보상 한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보상한도가 낮은⁸⁾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보상한도 1억 원 이하인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85개(10.5%), 보상한도가 1억 원 ~ 10억 원인 PL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282개(35%)였음(〈그림 1〉 참조)
 - PL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낮은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옥시 사례와 같이 보험금이 소송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음

6)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운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7) 외부감사대상기업.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매출 분포는 200억 원 이하가 158개, 200억 원 ~ 500억 원이 250개, 500억 원 ~ 1,000억 원이 154개, 1,000억 원 ~ 5,000억 원이 158개, 5,000억 원 ~ 1조 원 27개, 1조 원 이상이 59개임

8) 17세 남성의 사망 손해액은 4억 원 내외임. 사망 손해액은 개인의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자, 직장인과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의 사망 손해액은 10억 원 ~ 20억 원에 이를 수 있음. 10억 원으로 다수 사망자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고 보험금이 피해보상 이전에 소송비용으로 소진될 소지가 높음

■ 보상한도가 10억 원 이하인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 중 자본금 수준이 낮은 기업이 다수 존재

- 2016년 기준 자본금 분포⁹⁾: 1억 원 이하 16개(4.4%), 1억 원 ~ 10억 원 98개(26.7%), 10억 원 ~ 30억 원 105개(28.6%), 30억 원 ~ 50억 원 33개(9%), 50억 원 ~ 100억 원 45개(12.3%), 100억 원 ~ 500억 원 58개(15.8%), 500억 원 ~ 1,000억 원 5개(1.4%), 1,000억 원 ~ 5,000억 원 3개(0.8%), 5,000억 원 이상 4개(1.1%)
- ‘PL보험 보상한도와 자본금의 합계’가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액보다 적을 시 기업이 제조물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손해 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자본금과 PL보험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조사된 806개 외감대상기업 중 보상한도 10억 원 미만인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상당수의 기업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업종의 기업임

- 도축·육류·수산물·농산물(22개), 식료품 제조업(41개), 주류·생수·음료 제조업(8개), 치약·비누·세제 제조업(1개), 화장품(13개), 의약품·한의약품(11개),¹⁰⁾ 승강기(2개), 자동차 부품(5개), 음·식료품·담배 중개업·도매업·소매업(13개), 의약품·의료용품·화장품 도매업(6개), 의료·정밀·과학 기기 도매업(1개), 백화점·대형종합소매업·슈퍼마켓·도매업(9), 호텔업(2), 음식점·음료업점(8개), 골프장(11개), 유원지 및 테마파크(1개), 기타(213개)

■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kiri**

9) 비중은 PL보험 보상한도가 10억 원 이하인 367개 기업 대비 비중임

10) 의약품 제조업 중 2개는 보상한도 1억 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